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톈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약100만원/한 학기
파견지역	톈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3)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6.9.3.~2017.1.11	기타비용	생활비

■ 파견자 정보

성 명	***	학 과	*****
성 별	여자	학 년	올해3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7. 1 . 17

파견자 : *** (서 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텐진외국어대학교의 수업 방식은 참여수업이었습니다. 일단 실력별로 초,중,고로 반을 나누어 수업하였고, 전 중급1반에 들어갔는데, 중1반의 교육과정은 extensive reading, intensive reading, listening, 회화 로 중 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인지라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수업 자체에 참여하여 집중도를 높이게 해주셨고, 계속 참여 권유를 받다보니 자연스레 말도 늘어간 것 같습니다. extensive reading은 길고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수업으로, 그중에 나를 난이도가 있던 수업이었습니다. intensive reading은 비교적 간단한 문장과 단어이지만,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hsk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listening은 컴퓨터를 통해 수업했으며, 직절적 화법의 문장보다는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비유적 표현들로 많이 구성되어서 다른 분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화수업에서는 게임과 책 본문, 또는 ppt발표와 연극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중국어를 내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수업과제로는 ppt발표 준비해오거나 책 본문예습, 복습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텐진은 베이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의 직할시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기후는 한국과 비슷하며, 교통또한 잘 되어있지만, 교통관리 자체는 매우 혼잡하였습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는 차와 사람들이 뒤섞여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으니까요. 주변에는 걸어서 20분정도 기다보면 한국의 명동과 같은 거리가 나와서 필요한 물건이 필요할때면 자주 갔습니다. 또한, 학교식당 내에 한식도 구비되어 있어서 혹여나 초반에 중국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시기엔 자주 한식을 이용했습니다. 텐진외국어대학교는 전체적 환경은 매우 깔끔하고 정돈되어있으며, 치안이 좋아서 아직 말에 서투른 유학생들도 비교적 다른 중국지역보다 안전한 편입니다. 또한 광둥어처럼 표준어와 매우 다른 지방 사투리도 거의 없어서 중국 표준어를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이징 옆에 위치해서 그런지 공기가 정말 안좋습니다. 거의 파란 하늘을 볼 수 없으며, 항상 회색하늘과, 미세먼지 농도는 한국의 3배에 다듭니다. 공기만 좋다면 한국 못지않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약 100만원이상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규정은 딱히 없으며, 통금시간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주인사항	음식을 만들때는 항상 불조심!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이것은 현재 제가 위치를 옮겨서 원래 기숙사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인1실로 화장실, 티비, 책상 2개 , 장롱, 침대 2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렇게 자유롭게 위치 변동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은 한 층마다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내부 복도입니다.

햇빛에 가려져 잘 안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깔끔한 편입니다.

유학생들은 자유로이 방 밖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거나 하고, 쓰레기는

방 앞에다가 두면 청소부들이 치워줍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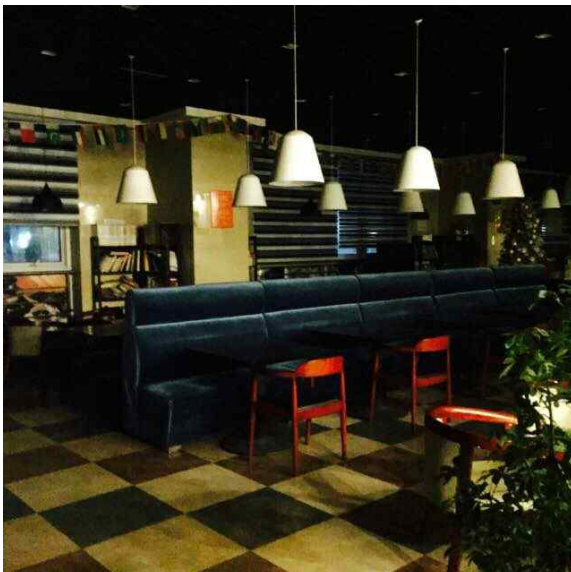
사 진

첨 부

기숙사 외부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건 도서관이며,
가운데 건물이 유학생 기숙사입니다.
바로 앞엔 운동장, 옆에는 학교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편리했습니다.



기숙사 내 탕비실?입니다.
한 층당 하나씩 있으며, 음식을 해먹을 수
있고, 설거지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생이 좋지 않아서
자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부에는 냉장고, 전자렌지, 설거지도구,
음식 조미료, 선반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숙사 1층 로비에 있는 심터입니다.
옆에는 카페가 하나 있고, 유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과제를 하거나 프리토킹을 할때에
자주 모여서 이야기 하는 만남의 공간입니다.
저도 여기서 중국인 친구들과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놀았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기숙사 바로 옆에 위치한 도서관입니다.
 건물 자체는 많이 낡고 시설도 매우 노후되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아 방에서 공부 집중이
 잘 되지 않을때엔 자주 가서 공부했습니다.
 평일에만 열며, 그 시간도 길지 않아서 빠르게
 도서관 이용을 하고 나가야만 하는게
 아쉬웠습니다.



항상 수업이 있을때면 가서 듣는 학교 건물
 입니다. 한 건물을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용
 하다 보니 아침시간 수업을 갈때에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유학생들은 거의 9층
 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그러다보니 높은 층이라
 계단을 더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기숙사 내에 있는 세탁실입니다.
 한 층에 하나씩 있으며, 한 층당 3개입니다.
 세탁카드를 1층 로비에서 사서 이용가능
 하였으며, 옆 쪽에는 빨래를 널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빨래를 돌려놓고 안가져가는
 학생들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도 있었지만,
 나름 빨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좋았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저는 현재 ****을 재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환학생 파견 당시에는 2학년 2학기였으며, 반학기만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에 파견되기 이전에 저의 중국어 실력은 정말 친구들 중에서도 밑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학교에서 다른 애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교에 들어와서 중국어를 처음 배운거지만, 그래도 저의 열등감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가게 되었고, 파견을 통하여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견 이전의 목표는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였는데, 저는 그 이상을 넘어 많은 성과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인과 대화라고 하면 벌벌 떨었던 저인데, 이젠 더 이상 떨지않고, 이러한 상황일땐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 제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중국인 친구들에게 즉각 질문하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잘 안되서 우울하고 무기력했지만, 중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다보니 그런 걱정은 이미 사라지고도 없었습니다. 중국에 직접 가니 현지인들과 부딪쳐야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중국어 실력은 계속적으로 향상되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인 문장구조는 머릿속에 갖춰지고, 무엇보다 중국인이 말을 걸어 올때면 절 때 떨지 않습니다. 교환학생은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보면 인생의 한 터닝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변화해 온 것에 있어서 저는 매우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낍니다.

수업 외에도 저는 한달에 한번씩은 여행을 가려고 애썼습니다. 중추절날 간곳은 베이징, 그이후로는 칭다오, 상하이, 항저우까지 총 4곳의 도시를 여행하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있는 고속열차나 숙박 등 모든게 낯설어서 무서웠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니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아직은 제대로 적응이 안될 때였고, 그래서 그런지 서둘기만 한 여행이었다면, 그 이후에 칭다오 나 상하이, 항저우에서는 계획대로 잘 여행하고 왔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장거리열차입니다. 최대한으로 돈을 아끼려고 13시간을 기차에 앉아서 가보니, 그 속에서 중국의 실제 서민들, 중국인의 삶을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가서 위기가 닥칠때면, 예를들어 숙박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말이 통하지 않을때면 중국인 친구들에게 부탁하여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보고 나니, 무슨 일이 닥쳐도 해낼수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이외에도 학교 내에서 외국인들과의 파티 또한 재밌었던 일들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날이면 유명한 술집에 모여들어 서로 인사하고 돌아가며 했던 것이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학기를 중국에 살면서 재밌고 이상하고 가끔은 우울했던 날도 있지만, 그 모든 날이 의미있고 다 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